

석사학위논문

부모의 학습참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종 덕

2001년 8월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출자 김 종 덕

김종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 종 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태수

학업동기는 개인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어떠한 학업 동기를 갖는가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를 결정하는 변인이라는 전제 아래,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업동기는 성별이나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제공 등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업동기는 성별이나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시내에 있는 초·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750부의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검사지와 학업동기유형

검사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학교 급별, 남녀별로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한 신뢰도 검증, 변량분석과 독립집단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제공은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 지적동기 및 사회적동기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으로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정보제공형, 무지원형 또는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무지원형의 순서로 동기점수들이 긍정적인 분포를 보이며, 집단에 따른 차이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학업동기는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가장 긍정적이고 고등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은 모두가 실패회피무동기, 지적동기 및 사회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초등학생에게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 및 지적동기에, 학업정보제공은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섯째, 중학생에게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에,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와 지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곱째, 고등학생에게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 학업정보제공은 유능감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부모의 학습관여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로 하여금 긍정적인 학업동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학습관여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와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4
2. 학업 동기의 개념과 유형	9
3.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동기의 관계	14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8
2. 측정도구	18
3. 자료의 처리	21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인 실태	22
2.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	24
3.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25
4. 성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26
5. 학교급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27
6.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28
V. 요약·결론 및 제언	
1. 요약	43
2. 결론	45
3. 제언	47
참고문헌	48
영문초록	51
부 록	54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적 자료	18
<표 III-2>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검사지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20
<표 III-3>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검사지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21
<표 IV-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검사의 일반적인 실태	22
<표 IV-2> 학습관여 하위영역별 일반적인 실태	22
<표 IV-3> 학업동기 검사의 일반적인 실태	23
<표 IV-4> 학업동기 하위영역별 일반적인 실태	23
<표 IV-5> 학습관여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표	24
<표 IV-6>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25
<표 IV-7> 성별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26
<표 IV-8> 학교급별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	27
<표 IV-9> 학습관여가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28
<표 IV-10> 학습관여가 유능감 동기에 미치는 영향	29
<표 IV-11> 학습관여가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0
<표 IV-12> 학습관여가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1
<표 IV-13>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32
<표 IV-14>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3
<표 IV-15>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4
<표 IV-16>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35
<표 IV-17>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6
<표 IV-18>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37
<표 IV-19>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38
<표 IV-20>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유능감동기에 미치는 영향	39
<표 IV-21>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40
<표 IV-22>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4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석차, 가정학습, 과제처리, 시험준비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심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학업압력은 자녀의 학업동기를 저하시키고,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순희, 1996).

부모-자녀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숙명적인 인간 관계로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 적응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환경이다(권석만, 1998). 부모는 자녀의 성숙에 따라 보살피는 사람에서 조정자로 다시 사회화를 선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등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조정자의 역할이나 사회화 선도자로서의 역할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Buss & Plomin, 1975). Paulson에 의하면 성공과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는 부모들은 높은 학구적 성취와 높은 포부수준을 지닌 청소년 자녀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과 격려를 받는다(장휘숙, 2000, 재인용).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동기를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는 유기체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심리적인 에너지이며 유기체가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인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의 상황에서 동기화된 학생들은 유목적적이고 정력적으로 학습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학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동기는 자기성취감, 자기 만족감 등에 의해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내적동기와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외적동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외적동기는 내적동기보다 약하거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는 외적동기보다 내적동기가 강조되고 있다(김종서 외, 1985).

Keller는 “동기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나 목적을 추구할 것인지 혹은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선택된 방향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여 학업 동기는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변영제, 2000, 재인용).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능을 비롯한 개인의 내적 요인과 함께 물리적인 환경 등 여러 외적 요인이 있겠으나 학업동기는 개인이 가진 능력을 적극적인 학업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이성진, 1996). 이렇게 학업동기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며 어떠한 학업동기를 갖는가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부모행동, 부모의 기대, 가족 간의 의사소통 유형 등 부모와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임은미, 1991; 김현숙, 1995; 민영한, 1997; 이동영, 1997; 김영선, 1999; 김정옥, 1999).

그리고 학업동기나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학업 압력, 교육적 기대, 학업성취 기대수준, 학업배려 등 보다 학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제시한 연구결과들도 있다(박순희, 1996; 김애리, 1999; 이재구, 2000; 임종석, 2000).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거나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로 관여하는 형태 즉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또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를 결정하는 변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자녀의 학습에 대하여 부모가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과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2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구분하고 그러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와 가설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녀의 학업동기는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부모의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제공 등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를 높일 것이다.

1-2.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를 높일 것이다.

가설 2. 학업동기는 성별에 따라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1. 학업동기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2. 학업동기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1. 부모의 자율성격려의 영향은 초등학생이 가장 적게 받고,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3-2.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의 영향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고,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이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양육태도와 학습관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고, 학업동기의 개념과 그 유형 및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인간의 성장 발달은 그가 가지고 태어난 가능성과 환경의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환경요인들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Baumrind, 1967; 이동영, 1997; 민영한, 1998; 김애리,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성 정서성을 포함한 생활방식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모의 학습 자율성 증진행동과 학업정보제공,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학업배려 또는 학습지도 유형 등이 학업성취 또는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1986; 김영선, 박순희, 1996; 임은미, 1998; 김애리, 1999; 황대성, 1999; 이재구, 2000). 또 임은미(1998)는 부모의 행동이 사춘기 이후 자녀의 성취동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여 부모의 자율성증진 행동과 학업정보제공행동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 부모행동 등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분명한 용어로 정의하고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내려져 왔다. 함정숙(1981)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원식(1985) 등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모순 없이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부모의 전체적인 태도라고 하였으며 Fishbein 등(1975)은 문화양식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하여 행사하는 모든 행동과 의사교류를 양육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애착대상이며 의사교류자일뿐만 아니라 양육자이고 교육자이며 가장 큰 권위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J. O Brubaker & R. E. Clark, 1985). 그런데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Dreikurs는 아동들의 창의적이며 독특한 자아실현을 돕는 자녀양육 방법으로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자녀의 내재적 자원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격려를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자녀의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그의 행동에 대한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귀결(logical consequence)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협동, 상호존중, 격려, 논리적인 귀결 그리고 민주적인 생활을 토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고(Brooks, 1981), Hurlock(1950)은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에 의해 양육된 아동은 지도력이 있고, 창조적이며, 자신감과 인내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 Sax와 Stollack(1971)는 엄격하고 비민주적이며 부적 강화를 많이 주는 부모일수록 어린 아이에게 두려움, 불만, 적대감을 많이 일으켜 아동의 호기심, 독창성,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Baumrind는 부모의 통제패턴이 자녀의 성취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통제 양식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독재적(authoritarian) 부모로 자녀에게 규칙을 부과하고 순종을 강요하는데 규칙의 목적이나 규칙부과의 이유를 설명하는 일이 없으며 자주 신체적 처벌을 사용한다. 둘째는 허용적(permissive) 부모로 이들은 규칙을 부과하지도 않고 자유 방임적이다. 혹 규칙을 부과한다할지라도 일관성이 없으며, 자녀들에게 확고한 통제를

행사하지 않는다. 셋째는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로 이들은 규칙을 부과하고 왜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가를 설명해준다. 이들의 통제는 일관성이 있으며 자녀의 욕구에 반응적이고 아동의 견해에 귀기울이며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또한 발달수준에 맞는 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연구결과 권위적 부모의 자녀가 가장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허용적 부모의 자녀가 문제행동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장휘숙, 2000, 재인용).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와 자율-통제의 두 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 중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되 방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며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부모와 협력해 가는 관계인 애정적-자율적 태도가 아동발달에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자녀가 어릴 적에 부모가 행한 양육방법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부모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강조해 온 변인들 중 외부에서 자녀에게 부과하는 성취에 대한 압력이나 통제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Baumrind(1991)도 지적하였듯이 바람직한 자녀의 양육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에서 비롯된다. 부모들이 청소년에게 가지는 기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부모들의 기대가 청소년 발달이나 성장의 현실성에서 크게 벗어났을 때는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Rutter, 1995). 현재 국내에서 개발·보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부모역할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정도를 줄여서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믿고 맡기는 자율성 실험을 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임은미, 1998). Thersa와 Caplan(1984)은 아동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육방법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의 특별한 행동에 민감하여서 적절히 개입하고, 학습환경을 풍부하게 해

주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며, 자녀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객관적인 위치로 옮겨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받게 된다(김숙자, 1989).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유아시절에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율성을 주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에는 어리다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춘기에 이르러서는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과 새로운 역할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부모들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은 사상적, 인지적 동일시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로서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동일시의 대상으로, 상담자로, 친구관계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성영혜, 1993).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면 부모는 자녀의 행동의 통제 여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소재, 인간관계와 학업성취 사이의 갈등, 자녀와의 관계 설정, 과업의 완수에 대한 안정성과 도전 사이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Duvall, 1977).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자녀가 유아일 때는 부모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학동기가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자녀의 학습성취를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력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은 자녀의 학업동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안한 학자들도 있는데,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학습관여라고 볼 수 있겠다. Busse(1969)는 어머니로부터 지나친 통제나 보호받은 아동은 지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임은미(1998)는 자율성을 증진하는 4가지 개념에다 학업정보제공을 첨가하여 부모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는 학습선택권부여로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적인 규칙 제공으로 자녀의

학습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규칙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목표부합행동강화로 학업성적으로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습행동을 검토해 주는 것이다. 넷째는 개인내적 향상 격려로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고유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학업정보제공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Dave(1963)는 환경을 과정변인으로 분류한 다음 ① 성취압력, ② 가정에서의 언어모형, ③ 가정에서의 학습조력, ④ 탐구경험을 허용하는 자극, ⑤ 가정 내의 지적흥미와 활동, ⑥ 가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습관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계수가 가정의 지위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정원식 외, 1977,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성격발달을 비롯한 성장 발전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습관여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부모의 학습관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으로 자녀의 학습 성과에 대한 기대수준, 성취에 대한 압력이나 격려, 자율성의 허용 정도, 학습에 대한 관심이나 조력 행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은 학업성취 압력, 학습성과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 통제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과 학업정보제공이 자녀의 학습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은미의 부모행동 개념을 받아들여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동과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에 한하여 부모의 학습관여 변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2. 학업동기의 개념과 유형

1) 학업동기의 개념

동기(motive)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Lindsley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잡고, 유지하는 힘의 총합”이라고 하였고, Combs와 Snygg는 “자아개념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힘”이라고 했으며, Guthrie는 “반응의 강도를 높이는 조건”이라고 했다. 어떻게 규정하든 동기는 유기체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Kimble은 동기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은 같은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같은 조건이나 상황 하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이성진, 1983. 재인용).

먼저 주요 동기이론인 행동주의 학습 이론, 기대-가치이론, 욕구이론, 귀인이론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mental mechanism)를 거쳐 이루어지며 어떤 힘이 학습을 성립시키는가를 설명해 주는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를 말한다(정원식 외, 1977).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제안했던 수업 조직의 전략들은 강화와 피드백 효과를 활용하여 최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옳은 반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학습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의 학습자료와 다양한 힌트와 암시를 제공하여서 옳은 반응을 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획득하면 즉각적인 피드백 등 다양한 외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학습자들에게 내적 동기의 원리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고(Lepper & Green, 1979), 보상을 학습자의 학업 성취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경우 내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강화는 학습자가 학습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과제에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Deci, 1975).

Tolman과 Lewin의 연구에서 시작되는 기대-가치 이론은 학습자의 행동은 행

동이 가져올 결과의 지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결과나 목표의 진술된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행위가 낳는 결과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의 행위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그리고 그 목표나 결과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특정 과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인다. 즉, 특정과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는 학습자는 먼저 결과 뒤에 따를 다양한 보상을 고려한다. 만약 어떤 보상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노력은 수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 결과나 목표의 가치에 대한 기대는 학습 내용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이다(김홍경, 2000. 재인용).

Maslow의 욕구 이론은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모든 인간은 성장하고, 인정 받으려하고, 성취하고자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하나의 위계로 나타내었다.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사랑, 자존감, 자아 실현의 위계구조로 되어 있으며, 하위 욕구가 충족될 때만이 상위욕구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부모는 자녀의 하위욕구에 민감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동기이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성취욕구를 지니기를 바란다면 부모의 인간적인 관심을 받고 자하는 자녀의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김영진, 1999. 재인용).

Weiner는 귀인이론을 기대-가치 이론의 틀에 접합시켜서, 성취상황에서의 성취동기를 설명하려는 성취귀인이론을 발전시킨 바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탐색하게 되며, 이 때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기대나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 결과 성취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귀인요인들은 내외 인과성(locus of causality), 안정성(stability), 및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등의 세 가지 귀인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공이나 실패 이후의 기대의 변화는 세 가지 귀인차원 중에서도 원인의 지각된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수행 결과를 안정적인 요인들(능력, 과제의 난이도)에 귀인시키면, 기대의 변화량은 작게 나타나는 반면, 불안정적인 요인들(노력, 운)에 귀인시키면, 기대의 변화 폭은 커진다는 것이다. 성취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반응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성취귀인이론에서는 성공이나 실패 경험 자체가 일차적으로 만족이나 불만족과 같은 일반적인 정서 경험을 야기시키지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정서가 경험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귀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된 성공기대와 정서적 반응은 다시 미래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서용원·임대열, 1998).

이상섭과 오만록(1989)은 유기체 자체에서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는 상태나 태세를 말하는 동기는 욕구(need)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동기는 특히 학습사태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동기의 일종인 학습동기란 특정과제를 학습하려는 추진력이며 성취동기란 어떤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라고 하였다.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란 개인의 성취에 대한 필요(need)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학습성취의 필요 또는 동기로 개념화되며 Murray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인간의 동기체제 중 하나의 요인이다. 그는 인간의 행위를 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인생체제의 핵심이 필요(need)이며, 환경체제의 핵심은 개인이 외부로부터 지각된 압력(press)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Murray가 개념화한 동기체제 중 성취동기는 후에 McClelland 등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었다. 성취동기란 상식적으로는 훌륭한 일을 이루어보겠다는 내적 의욕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는 부나 지위와 같은 외적 보상을 얻고자하는 의욕은 여기서 정의한 성취욕구와는 다르다. 즉 성취욕구는 어떠한 훌륭한 과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만족하는 성취 자체를 위한 성취욕구로 성취결과와는 상관없는 성취를 위한 내적 의욕 또는 동기를 중요시하는 개념이며, 학습에서 성취동기는 학업동기와 직결된다(정원식외 1977).

Bandura는 학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통합, 조직, 구조화하는 여러 가지 방략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중의 하나가 동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학업동기가 높은 학생은 높은 성취동기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다고 하고 성취동기란 어려운 과제를 성취해 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라고 보고 있다.(최윤미 외, 1998. 재인용) 김영미(1997)는 적절한 학업동기는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뿐 아니라 학습활동을 지속시키고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므로 학습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실제의 학습에 대한 흥미, 수업태도, 수업준비성, 수업참여도, 열성적인 노력 등은 모두 학업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행위라는 것이다(김재열, 1999).

이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성취동기를 학업동기라고 하겠는데 이는 학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업동기를 학습자로 하여금 학업행위를 유발시키고, 학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발적인 힘이라고 정의한다.

3) 학업동기의 유형

학업동기는 내적동기(intrinsic motive)와 외적동기(extrinsic motiv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동기는 성적이 좋았을 때 부모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유발되는 동기를 뜻한다. 반면에 내적 동기는 자기성취감, 자기만족감 등에 의하여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동기를 뜻한다. Bruner가 강조하는 탐구정신이나 발견정신 등도 내적 동기이다.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찾음으로써 학습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학습동기는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보다 약하거나 일시적이다. 따라서 학습동기의 유발에 있어서는 내적 동기가 강조되어야 한다(김종서 외, 1985).

내적 동기에 관한 이론은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전감, 유능감, 숙달 동기(Deci, 1975; Harter, 1978; Lepper & Greene, 1979; Weiner, 1980; White, 1959)와 같은 개념의 관점에서 내적 동기를 논의해 왔다. 이 관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존재로 보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관여하는 정도까지 내적으로 동기화 된다. 중간 수준의 난이도의 활동은 내적 흥미를 증가시킨다.

둘째, 호기심, 불일치(Berlyne, 1965)와 같은 개념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은 인간을 정보처리자에 비유한다. 인간은 첫 번째 기대나 지식 상태에서부터 적절한 중간 수준의 놀라움, 불일치, 모순을 제공하는 활동으로부터 즐거움을 추구한다.

셋째, 지각된 통제와 자기 결정감(Condry, 1977; deCharms, 1978; Deci, 1972, 1975)의 개념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은 인간을 자발적 행위자로 본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을 행사하고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해 개인적 통제감을 주는 내적 동기를 경험한다(김홍경, 1999. 재인용).

Maehr(1976)는 내적 동기에 의해 완성되지 않은 과제를 다시 학습하려는 의지를 지속적 동기(continuing motivation)이라고 한다. 즉 지속적 동이란 연속된 시간과 유사한 학습 과제 및 학습환경에서 외부압력이 없어도 계속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Deci(1975)는 지속적 동기를 외부 압력이나 요구 없이 계속된 흥미에 의해 이전의 학습 과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본다. Lepper, Green & Nisbett(1973)는 학습 활동에 있어서의 지속적 흥미로 정의하였다. 수업 내용을 설계할 때, 학습자들이 학습 과제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학습자들은 미완성된 과제를 다시 학습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Maehr(1976)에 의하면 어떤 점에서 지속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양자는 다르다. 내적 동기가 교육 결과로써 동기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 동기는 동기가 유발되고, 교육과 연관된 행동 유형에 관해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다. 지속적 동기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내재적 동기 유발이 결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홍경, 1999. 재인용)

한편 임은미(1998)는 Vallerand 등이 제시한 학업동기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학업동기 유형을 8개로 구분하였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무동기 : 학교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부의 중요성을 거부하며, 학교공부에 무관심함으로 인해 억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
- 나) 실패회피동기 : 억지로 학교에 다니는 정도는 줄었으나 학과공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동기
- 다) 상대적유능성 동기 : 남들에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기
- 라) 자기유능감 동기 : 지적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학과공부에 임하는 동기
- 마) 사회적 성공 동기 : 학과공부자체에 흥미를 갖지는 않으나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동기
- 바) 사회가치동조 동기 : 학업의 수행을 통하여 사회적인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학업에 갈등을 겪지 않는 동기

사) 지적성장추구동기 : 새로운 지적 자극을 발견해 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등
지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기

아) 지적만족추구 동기 : 성과보다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껴,
학업에 임하는 동기

여기에서 임은미(1998)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기유능감 동기, 지적만족동기, 사회적가치동조동기, 지적성장동기, 상대적유능성동기를 자율성의 정도가 높은 변인으로 보고 자율성동기로 사회적성공동기를 사회적동기로, 실패회피동기와 무동기를 무동기로 구분하여 학업동기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은미의 8가지 학업동기의 구분을 적용시켜, 일단 동기를 8개로 구분한 다음, 이를 유사한 항목까지 묶어, 내적동기이며 지속적동기로 볼 수 있는 지적동기, 내적동기로 볼 수 있는 유능감동기, 외적동기로 볼 수 있는 사회적동기, 그리고 학업동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실패회피무동기로 구분하고 부모의 학습관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동기의 관계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randall는 부모의 양육방법은 자녀의 성취동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성취에 보다 정서적으로 관여한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경우에 자녀의 성취동기는 높게 형성된다(김현숙, 1995).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상호작용 유형이 자아개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가족 상호작용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상호간의 지지와 인정은 높은 성취동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1999). 가족 구성원은 부모 외에도 형제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모의 지지와 인정은 자녀의 성취동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McClelland(1953)는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립을 기대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가설은 Marian Winterbottom(1958)이 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고 어머니의 양육기법과 비교한 결과 자녀의 독립성을 신체접촉으로 강화해 주는 부모의 자녀가 성취욕구가 높음이 밝혀짐으로써 지지되었다. Bernard Rosen과 Roy D'Andrade(1959)도 아동이 하는 일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동이 자기 식대로 하도록 격려하는 것만큼이나 성취동기의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년들에게는 어렵고 짜증스러운 과제를 주고, 부모들은 지켜보면서 격려나 제안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수행의 질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는 힌트를 주며 수행기준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칭찬을 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높은 성취동기 수준이 높았다. 또 Diana Baumrind(1971)는 부모의 전반적인 통제패턴이 자녀의 성취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먼저 부모의 통제양식을 관찰해 본 결과 독재적 부모와 권위적 부모 그리고 허용적 부모 등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났다. 독재적 부모는 일정한 행위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형성하고 통제하여 평가하며 복종을 강요하고 강압적이었다. 한편 권위적 부모는 자율적인 의지와 동조의 훈육을 모두 가치롭게 여겨, 통제적이면서도 자녀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허용하여 자립심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그리고 허용적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숙한 반응을 제재하거나 자립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도 않았다. 이런 부모의 통제양식과 자녀의 성취동기 수준을 비교한 결과 권위적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성취지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최순영·김수정, 1998. 재인용). Weiss는 가정의 작용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아동 5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성취동기를 육성한다고 보는 작용변인 3개를 수월(秀越)과 기대표준(期待標準)의 생성(生成), 독립성(獨立性)훈련, 부모의 승인(承認) 등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하위환경변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러한 환경변인은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황정규, 1985. 재인용). 민영한(1997)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한 집단이 거부적이라고 지각한 집단보다 학업성취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임은미(1991)도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

서특성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이동영(1997)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 친애, 자율로 지각한 아동이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양육태도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이 성취동기 또는 학업동기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있었다. Dauglas(1972)는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아동들은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며 오랜 기간동안 학업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고 하여 부모의 학업기대와 격려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상의 기대나 압력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면 그것은 그들의 목적 달성에 촉진 또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기, 흥미, 태도 등에도 영향을 준다(Murray, 1962).

부모의 기대수준이나 태도, 학업 압력 등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재구(2000)는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압박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진다고 주장하였고 박순희(1996)도 부모의 학업압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학업동기는 저하된다고 하였다. 한편 김현숙(1995)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성취동기도 높다고 하였고, 김영선(1999)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황대성(1986)은 학습의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의 학력이 월등하게 높다고 하였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기대수준, 학습지도 유형, 의사소통 방법 등의 학습관여형태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임은미(1998)가 부모행동·학업동기·학업성취도의 세 변인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학업성취도를 강하게 예언하는 변인은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부모의 행동변인보다 자녀의 학업동기변인이며 부모행동은 자녀의 학업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를 간접적으로 예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태도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성취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 준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육태도에 속하는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이나 학교급별에 따라 학업동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혀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내에 있는 초·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7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과 전부 또는 일부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시키며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교 급별, 남녀별로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의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적 자료는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연구대상에 대한 기술적 자료

구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계	
	회수량	분석대상	회수량	분석대상	회수량	분석대상	회수량	분석대상
남	123	100	126	100	119	100	368	300
여	116	100	112	100	118	100	346	300
계	239	200	240	200	237	200	714	600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검사와 학업동기유형검사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검사

임은미(1998)는 Deci(1995)가 제안한 네 가지의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행동요인인 공부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적절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는 것, 학업과정을 문제해결적 태도로 검토하는 것, 자녀의 학업 진보를 격려하는 것과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개념에 맞추어 유형별로 10문항씩 50문항으로 구성된 「부모행동 검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부모행동 검사」는 각 문항의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염려하여 본 연구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개념이 중복되는 일부의 문항을 삭제 또는 통합, 30문항으로 축소하여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검사」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검사」는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부모의 관여형태를 학습선택권 부여형, 민주적 규칙제공형, 적절한 성과 추구형, 학업진보 격려형, 학업정보제공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문항을 분석한 내용과 신뢰도는 <표 III-2>와 같으며 검사지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학습관여형태 검사는 5개의 평정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 2, 3, 4, 5로 표기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1」에, 「그렇지 않다」일 때에는 「2」에, ... 「매우 그렇다」일 때에는 「5」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5」에 표시했을 경우는 문항의 내용에 따라 바람직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검사지의 문항중 1, 2, 3, 5, 6, 8, 10, 11, 13, 15, 16, 17, 21, 23, 24, 27, 28, 29, 30은 바람직한 학습관여일수록 「5」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4, 7, 9, 12, 14, 18, 19, 20, 22, 25, 26은 바람직한 학습관여일수록 「1」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에 표시하였을 때에는 5점, 5에 표시하였을 때에는 1점을 주게 된다. 그리고 다른 문항은 바람직한 학습관여일 때 「5」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5에 표시한 경우에는 5점, 1에 표시한 경우에는 1점을 받게 된다. 부모의 학습관여 총점은 각 형태 별로 6개 문항 모두의 값의 합계이다. 학습관여 총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가장 바람직한 점수는 각 형태별로 30점이다.

그리고 부모의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제공, 목표부합 추구, 개인향상격려를 자율성격려로 통합,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게 하였다.

<표 III-2>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검사지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구 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학습선택권부여	1, 6, 11, 16, 21, 26	6	.87
민주규칙제공	2, 7, 12, 17, 22, 27	6	.83
적정성과추구	3, 8, 13, 18, 23, 28	6	.86
학업진보격려	4, 9, 14, 19, 24, 29	6	.88
학업정보제공	5, 10, 15, 20, 25, 30	6	.93

2) 학업동기 유형 검사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의 「학업동기유형척도」와 Vallerand, Pelletier, Blais, Briere, Senecal 그리고 Valleres(1992, 1993)가 제시한 학업동기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임은미가 학업동기의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씩 64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업동기유형검사」를 이용하였는데 문항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통합하여 32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학업동기유형검사」는 학업동기를 무동기, 실패회피동기, 상대적 유능성동기, 자기유능감 동기, 사회적 성공동기, 사회적 가치동조동기, 지적만족추구동기, 지적성장추구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문항을 분석한 내용과 신뢰도는 <표 III-3>과 같으며 검사지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학업동기 측정척도는 문항이 5개의 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 2, 3, 4, 5로 표기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매우 그렇다」고 생각될 때에는 「5」에, 「그런 편이다」일 때에는 「4」에, ... 「전혀 그렇지 않다」일 때에는 「1」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점수는 5에 표시하였을 때에는 5점, 1에 표시하였을 때에는 1점을 주게 된다. 학업동기 총점은 각 유형별로 4개 문항 모두의 값의 합계이다. 학업동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동기가 강한 것으로 보며, 가장 강한 점수는 유형별로 20점이다.

그러나 학업동기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무동기와 실패회피 동기를 실패회피무동기로, 상대적 유능성동기, 자기 유능감동기를 유능감동기로, 사회적 성공동기, 사회적 가치동기를 사회적 동기로, 지적성장 동기와 지적만족 동기를 지적 동기로 통합하여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3>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검사지의 구성과 신뢰도 계수

학업동기 유형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무동기	1, 9, 17, 25	4	.92
실패회피동기	2, 10, 18, 26	4	.85
사회적성공동기	4, 12, 20, 28	4	.88
사회가치동조동기	5, 13, 21, 29	4	.84
상대적유능성동기	3, 11, 19, 27	4	.80
자기유능감추구동기	6, 14, 22, 30	4	.86
지적성장추구동기	7, 15, 23, 31	4	.91
지적만족추구동기	8, 16, 24, 32	4	.93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처리를 하였다.

첫째,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고,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치를 측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부모들의 학습관여 형태와 성별에 따라 학업동기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독립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 학생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생들의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학습관여 형태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년에 따라 영역별로 단계적 투입 방법을 이용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인 실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검사마다 하위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조사하여 알아본 일반적인 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IV-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검사의 일반적인 실태

구 분	N	M	SD
학습선택권부여	600	20.77	4.02
민주규칙제공	600	20.95	4.10
적정성과추구	600	19.70	4.37
학업진보격려	600	20.41	4.20
학업정보제공	600	18.46	5.40

위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제공, 개인항상 노력 등에서 20.4 이상으로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목표부합추구,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학업정보제공이었다.

여기에서 부모의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제공, 적절한 성과추구, 학업진보 격려를 자율성격려로 통합하여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조사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IV-2> 학습관여의 영역별 일반적인 실태

구 분	N	M	SD
자율성격려행동	600	20.46	3.27
학업정보제공	600	18.46	5.40

다음으로 학업동기 유형검사지 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하위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조사한 일반적인 실태는 아래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업동기 검사지 일반적인 실태

구 분	N	M	SD
무동기	600	8.67	3.87
실패회피동기	600	8.65	3.62
상대적 유능성동기	600	9.30	3.06
자기유능감 추구동기	600	12.05	3.29
사회적 성공동기	600	14.35	3.36
사회가치동조동기	600	12.65	3.24
지적성장추구동기	600	13.81	3.60
지적만족추구동기	600	13.29	3.58

위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동기는 사회적 성공동기가 가장 높고, 지적성장추구동기, 지적만족추구동기 등이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무동기와 실패회피동기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학업동기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무동기와 실패회피 동기를 실패회피 무동기로, 상대적 유능성 동기, 자기유능감 추구동기를 유능감 동기로, 사회적 성공동기, 사회적 가치동조동기를 사회적 동기로, 지적성장 동기와 지적만족 동기를 지적 동기로 통합하여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조사한 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IV-4> 학업동기의 영역별 일반적인 실태

구 분	N	M	SD
실패회피무동기	600	8.66	3.47
유능감동기	600	10.68	2.63
사회적동기	600	13.50	2.95
지적동기	600	13.55	3.46

하위영역을 통합한 영역별 학업동기의 일반적인 실태는 위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동기는 지적동기가 가장 높고 사회적동기, 유능감동기, 무동기의 순서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관여 형태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습관여와 학업동기의 상관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IV-5>과 같다.

<표 IV-5> 학습관여와 학업동기의 상관관계표

구 분	실패회피무동기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
자율성격려	-.400 **	.066	.258 **	.356 **
학업정보제공	-.321 **	.188 **	.228**	.349 **

** : P<.01

위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실패회피 무동기와는 $r=-.4$ 정도로 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지적동기와는 $r=.356$ 정도로 나타나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동기와의 $r=.258$ 정도로 매우 약한 정적 상관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능감동기와의 $r=.066$ 정도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학업정보제공도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와 $r=-.32$ 정도로 약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지적 학업동기와의 $r=.349$ 정도로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동기와의 $r=.228$ 로 약한 정적 상관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유능감동기와의 $r=.188$ 정도로 매우 약한 정적 상관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자녀의 학업동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3. 학습관여 형태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가설 1의 검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가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에 따라서 자녀의 학업동기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는 아래의 <표 IV-6>과 같다.

<표 IV-6>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구	분	N	M	SD	F
실패회피무동기	자율격려+정보제공	204	7.10	2.95	26.51 ***
	자율격려	100	8.81	3.62	
	정보제공	101	9.20	3.33	
	비지원형	195	9.94	3.38	
	전체	600	8.66	3.47	
유능감동기	자율격려+정보제공	204	10.88	2.66	4.65 **
	자율격려	100	10.57	2.50	
	정보제공	101	11.30	2.97	
	비지원형	195	10.19	2.39	
	전체	600	10.68	2.63	
사회적동기	자율격려+정보제공	204	14.35	3.07	12.00 ***
	자율격려	100	13.45	2.78	
	정보제공	101	13.51	2.91	
	비지원형	195	12.63	2.70	
	전체	600	13.50	2.95	
지적동기	자율격려+정보제공	204	14.86	3.34	24.06 ***
	자율격려	100	13.61	3.66	
	정보제공	101	13.67	3.34	
	비지원형	195	12.08	2.94	
	전체	600	13.55	3.46	

** : P<.01, *** : P<.001

위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유능감 동기를 제외하면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무지원형의 순서 또는 자율격려+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정보제공형, 무지원형의 순서로 동기점수들이 긍정적인 점수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가 커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001).

다음으로 유능감 동기에서는 정보제공, 자율격려+정보제공, 자율격려 순으로 유능감 동기 점수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율격려+정보제공과 정보제공의 경우에 무지원형 보다 높으며, 정보제공의 경우에 자율격려형의 경우보다 좀더 높아서,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동기와 지적동기에서는 자율격려+정보제공, 정보제공, 자율격려, 무지원형의 순서로 동기 점수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율격려+정보제공의 경우가 특히 높고, 무지원형의 경우가 특히 낮은 편이어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 성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학업동기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는 아래의 <표 IV-7>과 같다.

<표 IV-7> 성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비교

구분	성별	N	M	SD	t
실패회피무동기	남	300	8.79	3.42	.893
	여	300	8.53	3.53	
유능감동기	남	300	10.77	2.46	.893
	여	300	10.58	2.79	
사회적동기	남	300	13.49	2.78	-1.117
	여	300	13.51	3.13	
지적동기	남	300	13.30	3.37	-1.762
	여	300	13.80	3.53	

위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패회피무동기나,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그리고 지적동기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학업동기의 점수 정도가 4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5. 학교급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비교

다음으로 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급별에 따라 학업동기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는 아래의 <표 IV-8>과 같다.

<표 IV-8> 학교급별에 따른 학업동기 차이 비교

구 분		N	M	SD	F
실패회피무동기	초	200	7.35	3.12	34.528 ***
	중	200	8.55	3.19	
	고	200	10.08	3.55	
	전체	600	8.66	3.47	
유능감동기	초	200	11.37	2.88	15.372 ***
	중	200	10.72	2.43	
	고	200	9.95	2.37	
	전체	600	10.68	2.63	
사회적동기	초	200	14.15	3.25	7.433 **
	중	200	13.18	2.65	
	고	200	13.17	2.85	
	전체	600	13.50	2.95	
지적동기	초	200	14.93	3.39	39.421 ***
	중	200	13.67	3.11	
	고	200	12.05	3.26	
	전체	600	13.55	3.46	

** P < .01, *** P < .001

위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학업동기는 초등학생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볼 때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실패회피무동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능감동기, 사회적 동기, 지적동기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1~P<.001).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늘어나는 학습량과 학업압력이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6.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의 검증 결과를 뒷받침하고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각 학교급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학업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9> 학습관여가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확률
모델	R	R ²	F	유의확률	상수	17.501		21.42	.000 ***
1	.400	.160	114.12	.000 ***	자율성격려	-.340	-.320	-7.44	.000 ***
2	.423	.179	65.15	.000 ***	학업정보제공	-.103	-.159	-3.71	.000 ***

*** : P<.001

위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관여가 학습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7.9% 정도이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패회피무동기와 학업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17.50 - .340 X_1 - .103 X_2$$

(Y=실패회피무동기, X₁=자율성격려, X₂=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1점 높아지면 실패회피무동기는 0.34 점 정도씩, 학업정보제공이 1점 높아지면 실패회피무동기는 0.1점 정도씩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학습관여를 함으로써 자녀의 학업동기 중 실패회기무동기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유능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0> 학습관여가 유능감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1	.188	.035	21.843	.000 ***	학업정보제공	0.0914	.188	4.674	.000 ***

*** : P<.001

위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유능감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3.5% 정도이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유능감 동기와 학업관여형태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8.988 + 0.091 X_1$$

(Y=유능감 동기, X₁=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유능감 동기는 0.09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유능감 동기에는 의미 있는 영향 정도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3.5% 정도로 매우 적어 부모의 정보제공이나, 자율성 격려는 유능감 동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변량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1> 학습관여가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8.634		11.728	***
1	.258	.066	42.585	***	자율성격려행동	.173	.192	4.209	***
2	.281	.079	25.675	***	학업정보제공	0.0716	.131	2.872	***

*** : P<.001

위 <표IV-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7.9% 정도이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 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8.634 + 0.173 X_1 - 0.0716 X_2$$

(Y=사회적 동기, X₁=자율성격려, X₂=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학업동기 유형 중 사회적 동기는 0.173 점 정도씩,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사회적 동기는 0.0716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즉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사회적 동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역시 적지만 자녀의 사회적 학업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2> 학습관여가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5.642		6.878	.000 ***
1	.356	.127	86.985	.000 ***	자율성격려행동	.256	.242	5.573	.000 ***
2	.407	.165	59.099	.000 ***	학업정보제공	.145	.227	5.232	.000 ***

*** : P<.001

아래의 <표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6.5%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적 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5.64 + 0.26 X_1 + 0.15 X_2$$

(Y=지적 동기, X₁=자율성격려, X₂=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정도 높아질 때마다 지적동기는 0.26 점 정도씩 향상하며,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정도 높아질 때마다 지동기는 0.15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즉,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지적동기에 비교적 큰 영향 미치고 있으며, 학업정보제공도 역시 자녀의 지적동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동기 중 지적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함께 학업정보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은 모두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지적동기와 사회적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학업동기 면에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학업정보제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동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으로 초등학생에서 볼 때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3>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1	.323	.104	23.033	.000 ***	자율성격려행동	-.357	-.323	-4.799 .000 ***

*** : P<.001

위 <표IV-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생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0% 정도로 나타나서,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패회피 무동기와 학습관여형태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14.889 - .357 X_1$$

(Y=실패회피 무동기, X₁=자율성격려)

으로 나타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정도 높을 때마다 실패회피 무동기는 0.36 점 정도씩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이는 변량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실패회피무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유능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는 아무런 의미 있는 영향 정도가 없어서 회귀 분석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동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14>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1	.185	.034	6.983	.009 **	학업정보제공	.112	.185	2.643	.009 **

** P < .01, *** : P<.001



위 <표IV-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3.4%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사회적 동기와 학업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11.895 + 0.112 X_1$$

(Y=사회적 동기, X₁=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자녀의 사회적 동기는 0.11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1) 즉, 초등학생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동기는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의 영향을 받고 있어 부모가 학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적동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자녀의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초등학생 자녀의 지적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Ⅳ-15>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비	유의수준	상수				
1	.321	.103	22.722	.000 ***	학업정보제공	.143	.224	2.923	.004 **
2	.362	.131	14.813	.000 ***	자율성격려행동	.231	.193	2.509	.013 *

* P < .05, ** P < .01, *** : P<.001

위 <표Ⅳ-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초등학생의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3.1%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적 동기와 학업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7.187 + 0.14 X_1 + 0.23 X_2$$

(Y=지적 동기, X₁=학업정보제공, X₂ =자율성격려)

으로 나타나,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지적동기는 0.14 점 정도씩 높아지고 있었다.(p<.01) 그리고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자녀의 지적동기는 0.23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5) 즉,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학습동기 유형 중 지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학업정보제공과 자율성격려 두 가지 모두이나, 자율성격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지적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격려하고 학업정보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 격려나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는 한편 사회적동기나 지적동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실패회피무동기를 줄이는데는 자율성 격려가, 사회적 동기를 높이는데는 학업정보 제공이, 지적 동기를 높이는데는 자율성 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이 모두 유용하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는 유능감동기를 높일 수는 없다

3) 중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으로 중학생에서 볼 때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IV-16>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값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1	.448	.200	49.610	.000 ***	자율성격려행동	-.326	-.364	-5.019	.000 ***
2	.471	.222	28.095	.000 ***	학업정보제공	-.109	-.169	-2.337	.020 *

* P < .05, ** P < .01, *** : P<.001

위 <표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22.2%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패회피 무동기와 학업관여형태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17.255 - .326 X_1 + .109 X_2$$

(Y=실패회피 무동기, X₁=자율성격려, X₂=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는 0.326 점 정도씩 감소하고(p<.001),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정도 증가할 때마다 0.109 점 정도씩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5)

이러한 연구결과로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패회피무동기에 부모의 자율성 격려함께 그 영향이 적기는 하지만 학업정보제공도 부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자율성격려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따라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실패회피동기를 줄이기 위하여 부모가 자율성 격려와 더불어 학업정보제공도 가해져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유능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어서 회귀분석이 성립하지 못하였다. 즉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제공 등 어느 것도 중학생 자녀의 유능감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와도 같은 결과인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17>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비	유의수준	상수				
1	.235	.055	11.559	.000 ***	자율성격려행동	.175	.235	3.400	.001 ***

*** : P<.001

위 <표IV-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R²)는 5.5%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 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9.596 + 0.175 X_1$$

(Y=사회적 동기, X₁=자율성 격려)

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사회적 동기는 0.175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1)

다음으로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지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18> 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확률
모델	R	R ²	F 비	유의수준	상수				
1	.392	.154	35.973	.000 ***	자율성격려행동	.259	.297	3.993	.000 ***
2	.426	.182	21.852	.000 ***	학업정보제공	.121	.192	2.588	.010 **

* : P<.05, *** : P<.001

위 <표IV-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학생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8.2% 정도이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적 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6.110 + 0.259 X_1 + 0.121 X_2$$

(Y=지적 동기, X₁=자율성 격려, X₂=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지적동기는 0.259 점 정도씩 높아지고(p<.001),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정도 높아질 때마다 지적동기는 0.121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1) 즉 중학생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등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지적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초등학생에서와 같은 결과로 중학생 자녀의 지적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격려하고 학업정보의 제공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실패회피무동기와 지적동기에는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모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학업정보제공보다는 자율성격려가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 또한 중학생의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자율성격려 한 가지이며 약 6%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4) 고등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다음으로 고등학생에서 볼 때에 학업관여가 학습 동기 유형 중 실패회피 무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19>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1	.345	.119	26.783	.000 ***	자율성격려행동	-.374	-.345	-5.175	.000 ***

*** : P<.001

위 <표IV-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실패회피무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11.9%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실패회피 무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17.496 - .374 X_1$$

(Y=실패회피 무동기, X₁=자율성격려)

으로 나타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정도 높아질 때마다 실패회피무동기는 0.374 점 정도씩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1)

이러한 연구결과로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에 매우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과 같은 결과이며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이 모두 실패회피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생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격려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유능감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20>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유능감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8.551		15.917	.000 ***
1	.190	.036	7.436	.007 **	학업정보제공	0.0839	.190	2.727	.007 **

** : P<.01, *** : P<.001

위 <표IV-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관여가 학습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는(R²)은 4%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유능감 동기와 학업관여형태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8.551 + 0.0839 X_1$$

(Y=유능감 동기, X₁=학업정보제공)

으로 나타나,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정도 높아질 때마다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동기 유형 중 유능감동기는 0.084 점 정도씩 향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1)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모의 학습관여 중 자율성격려는 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학업정보제공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유능감동기에 약 3.6%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이 학생들의 유능감동기를 조금이나마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부모의 학업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21>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사회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7.660		6.529	.000 ***
1	.321	.103	22.684	.000 ***	자율성격려행동	.278	.321	4.763	.000 ***

*** : P<.001

위 <표IV-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학업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사회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R²)은 10.3%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적 동기와 학업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7.660 + 0.278 X_1$$

(Y=사회적 동기, X₁=자율성격려)

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고등학생 자녀의 사회적 동기는 0.278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1)

다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IV-22> 학습관여가 고등학생의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모델적합성					구분	B계수	Beta	t	유의수준
모델	R	R ²	F	유의수준	상수	6.450		4.737	.000 ***
1	.284	.081	17.366	.000 ***	자율성격려행동	.282	.284	4.167	.000 ***

*** : P<.001

위 <표Ⅳ-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동기에 미치는 영향력(R^2)은 8.1% 정도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지적 동기와 학습관여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Y = 6.450 - 0.282 X_1$$

(Y=지적 동기, X_1 =자율성격려)

으로 나타나,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학업동기 중 지적동기는 0.282 점 정도씩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 < .001$) 즉,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율성격려 만이 자녀의 지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두 가지 모두가 자녀의 학업동기유형 중 지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상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학업정보제공 보다는 자율성격려행동이 좀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드러났다. 또한 실패회피무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에는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두 가지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능감 동기에는 학업정보제공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실패회피무동기에는 부모의 학습관여 중 자율성격려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동기에는 학업정보제공이 영향을 미치며, 지적 동기에는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유능감 동기에는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에는 실패회피무동기와 지적동기에는 부모의 학습관여 중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두 가지 모두가, 사회적 동기에는 초등학생과는 달리 자율성격려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어느 요인도 유능감동기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다 부모의 학습관여의 영향력이 좀더 적으며, 실패회피 무동기와 사회적 동기 및 지적 동기에는 부모의 학습관여 중 자율성격려가, 유능감동기에는 학업정보제공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를 결정하는 변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요인을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에 한정하여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학교급별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자녀의 학업동기는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부모의 자율성격려나 학업정보제공 등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를 높일 것이다.
 - 1-2.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지적동기를 높일 것이다.
- 가설 2. 학업동기는 성별에 따라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1. 학업동기는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2-2. 학업동기는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3-1. 부모의 자율성격려의 영향은 초등학생이 가장 적게 받고,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3-2.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의 영향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고, 고등학생이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시내의 초·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750부의 학습관여형태검사와 학업동기유형검사를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회수된 714명의 설문지 중에 학교 급별, 남녀별로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변수를 가려내고,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에 따른 학습동기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독립집단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녀의 학업동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학습관여 형태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자녀의 실패회피 무동기와는 -.4 정도의 부적상관이, 지적동기(.256) 및 사회적동기(.258)와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학업정보제공도 자녀의 실패회피 무동기와 -.321 정도의 약한 부적 상관이, 지적동기(.349) 및 사회적동기(.228)와는 정적 상관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변인 모두 유능감동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유능감동기를 제외하면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무지원형의 순서 또는 자율격려+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정보제공형, 무지원형의 순서로 동기점수들이 긍정적인 점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가 커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1 \sim .001$)

셋째,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학업동기의 점수 정도가 실패회피무동기, 유능감동기,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관여가 학업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며,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P<.001$), 그 영향력은 자율성격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가 유능감동기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격려 정도가 1점 높을 때마다 실패회피무동기를 0.36점 정도씩 낮추고 지적동기를 0.23점 정도씩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 정도가 1점 높아질 때마다 사회적동기는 0.11점, 지적동기는 0.14점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의 어느 요인도 자녀의 유능감동기를 높이지는 못했다.

여섯째,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지적동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유능감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학업동기는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동기는 현재의 성취감과 인정은 물론이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자녀의 바람직한 학업동기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은 자녀의 실패회피무동기와는 부적상관이, 지적동기 및 사회적동기와는 정적 상관이 있다. 그러나 두 변인 모두 유능감동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둘째, 학습관여형태에 따른 학업동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무지원형의 순서 또는 자율격려+정보제공형, 자율격려형, 정보제공형, 무지원형의 순서로 긍정적인 학업동기를 갖는다.

셋째,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학업동기가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다.

넷째,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며,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자율성격려가 더 크다. 그러나 부모의 학습관여가 유능감동기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

다섯째,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지적동기를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사회적동기와 지적동기를 높여주나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유능감동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자율성격려는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지적동기를 높여준다.

일곱째,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자율성격려가 실패회피무동기를 낮추고 사회적동기 및 지적동기를 높이며, 부모의 학업정보제공은 유능감동기를 높인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율성을 격려하고 학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학습관여를 통하여 자녀의 학업동기를 높여주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하여 자녀의 학업동기를 높이기 위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추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자율성 격려와 학업정보 제공에 한정되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형태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자녀의 학업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학업관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밝혀졌으나 자녀의 특성이나 개인차에 따라 관여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므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학습관여가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본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입장에서 본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가 바람직한 학업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율성격려와 학업정보제공 등의 적절한 학습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교급별로 그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1998),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 김봉환 외(2000),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숙경(198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숙자(1989), 「부모참여·교육론」, 교육과학사
- 김애리(1999), 부모 양육태도와 학업배려가 자녀의 시험불안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선(1999),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진(1999), 「효율적인 학습상담법」, 양서원
- 김재열(1999), 청소년의 학원수강과 학업동기유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김정옥(1999), 가족 상호작용 유형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서 외(1985),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 김현숙(1995), 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생이 성취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홍경 (2000), Keller의 동기 유발(ARCS) 수업 전략이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 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영한(1997),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순희(1996), 부모의 학업압력이 아동의 학업동기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영계(2000),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학지사
- 성영혜(1993). 「부모교육」, 문음사
- 유재근(1998), 초등학교 아동의 귀인훈련이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상섭·오만록(1989) 「교육학 개론」, 형설출판사
- 이성진(1983), “인간학습의 원리” 「신교육학강좌 6」, 교육과학사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혜원(1989), 학업성취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귀인,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은미(1991),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은미(1991),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대학원
- 장휘숙(2000),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정원식·이상노·이성진(1977),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 최수정·김순영(1998),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 최윤미 외(1998),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문음사
- 서용원·임대열(1998), “산업 및 조직”, 「한국심리학회지」, Vol.11, 제2호 한국심리학회.
- 함정숙(1981).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및 인지적 특성과
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대성(1986),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 유형에 관한 일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정규(1985),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Eds.). *Family Transition*, New
York : Erlbaum.
- Berlyne, D. E.(1965), *Motivational problems raised by exploring and
epistemic behavior*,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Brooks*

- Brooks, J. B.(1981). *The process of parenting*.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Buss, A. H. & Plomin, R.(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 Duvall, E. M.(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York: Harper & Row Publisher.
- Fishbein, M & Ai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Lepper, M. R & Green, D,(1979), *The hidden costs of reward*, Norristow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urray, H. A.(1962),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chaeffer, E, S.(1959).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 ed. John C. Glidewell,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omas Publisher Inc.
- Thersa & Caplan(1984). *The early childhood years: The 2 to 6 year old*. New York: Bantam Books, Inc.

<Abstract>

The Effect of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Kim, Jong Duk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 Soo

The academic motivation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achievement of study. While, that what kind of academic motivation a child has depends on the parent's rearing attitude, especially, on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So, in this stud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is a variable to decide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effect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has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ssues were examined:

First, what kind of effect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has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Second, what difference the academic motivation of study has by sexes or by level of schools?

Third, what difference the effect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has by level of schools?

To solve the above issues, 600 boys and girls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academic high schools in Jeju city were given a questionnaire for the motive of study and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and their response was analyzed, the result of which wa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or parent's information-providing for study has connections with non-failure-avoiding motive, intellectual motive, and social motive.

Second, the score of motive generally showed positive distribution in the order of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 information-providing type,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type, information-providing type and non-supporting type or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 information-providing type, information-providing type,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type and non-supporting type. As the difference was great by the groups, the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it showed tha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for academic motivation of study by the sexes and that the elementary students were the most positiv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most negative.

Fourth, as a whole, both the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and information-providing for study had an effect on non-failure-avoiding motive, intellectual motive, and social motive, among which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had more influence than the others had.

Fifth, for the elementary students,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had an effect on non-failure-avoiding motive and information-providing for study had an effect on social motive and intellectual motive.

Sixth, for middle school students,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had an effect on non-failure-avoiding motive, social motive and intellectual motive and information-providing for study had an effect on non-failure-avoiding motive and intellectual motive.

Seventh, for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encouragement of self-regulating had an effect on non-failure-avoiding motive, social motive and intellectual motive and information-providing for study had an effect on sense of competence motive.

Judging from the above result, we can find that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has great influence on child's academic motivation. Parent's proper commitment to study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ir child to have positive academic motivation.

<부 록>

부모님의 학습관여 형태와 나의 학업동기 유형 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이 자녀의 학업 동기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은 여러분의 공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쪽까지 한 질문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종 덕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곳에
√ 해 주십시오.

1. 여러분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2. 여러분의 학교와 학년은?

- ① 초등학교 5학년 () ② 중학교 2학년 () ③ 고등학교 2학년 ()

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검사

다음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그 번호에 V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싶은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하신다.	1	2	3	4	5
2	부모님이 내게 공부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고 하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공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 주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싶은 시간에 하고싶은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신다.	1	2	3	4	5
7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	1	2	3	4	5
8	부모님은 나의 공부목표와 성과를 나와 함께 검토하시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경쟁하여 이길 것을 강조하신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나의 공부나 진학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가 전해주신다.	1	2	3	4	5
11	부모님은 공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1	2	3	4	5
13	부모님은 성적이 잘못 나오거나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 더 잘해라"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신다.	1	2	3	4	5

번 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6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신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해주신다.	1	2	3	4	5
18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	1	2	3	4	5
19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실망하신다.	1	2	3	4	5
20	부모님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21	부모님께 공부에 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검토하신다.	1	2	3	4	5
22	부모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	1	2	3	4	5
23	시험성적이 잘못 나오면 공부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도와주려고 애쓰신다.	1	2	3	4	5
24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2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적이 없다.	1	2	3	4	5
26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신다.	1	2	3	4	5
27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꾸중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은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신다.	1	2	3	4	5
28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나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를 함께 의논해 주신다.	1	2	3	4	5
29	부모님은 내가 남보다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해도 전보다 나아지면 칭찬을 하신다.	1	2	3	4	5
30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함께 찾아주신다.	1	2	3	4	5

♡ 다음 쪽에서부터 <학업동기유형 검사>가 계속 됩니다. ♡

II. 학업동기유형 검사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에 V 하십시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공부는 왜 해야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1	2	3	4	5
2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학교에 나간다.	1	2	3	4	5
3	남들에게 똑똑한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4	좀 힘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5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스스로 느끼는 대견함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6	공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7	공부를 하면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8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넓힐 때 경험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9	왜 학교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	2	3	4	5
10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1	내가 잘나 보이려면, 난 꼭 학교공부를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2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3	공부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4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유능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5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번호	내용	전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책의 내용에 완전히 빠져들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7	학교에 다니긴 다니는데 죽지 못해 다닌다.	1	2	3	4	5
18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시니까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19	나는 남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1	공부할 때가 가장 내 본분을 다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2	쉽지 않은 학교공부를 해내면서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3	하나라도 더 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4	나 자신이 세운 목표를 훌륭히 달성해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5	정말로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학교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1	2	3	4	5
26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인간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7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8	나중에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29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0	학문적으로 뛰어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1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경험하는 신나는 느낌 때문에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32	어려운 것을 성취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	1	2	3	4	5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